



성균관대학교 제54대 총학생회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일시 2022. 03. 07. (월) 18:00
회의 장소 총학생회 회의실 (80414)
회 차 54 - 06
서 기 인사운영국장 내정자 임서영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유학대학
0	0	미선출 (비상대책위원회)
문과대학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미선출 (비상대책위원회)	X	0
경제대학	경영대학	사범대학
0	0	미선출 (비상대책위원회)
예술대학	글로벌리더학부	글로벌융합학부
0	0	0
동아리연합회		
0		

전체 단위 수: 9 / 정족수: 6 / 출석 단위 수: 9



1. 단위별 사업 보고

1) 총학생회

- 가. 신입생 환영 키트 및 인형 배부 진행 중 (2.28~3.11)
- 나. 스테이플러 비치 및 프린터기 위치 안내 (3.2 / 인권복지국)
- 다. <금잔디 문화제> 공연팀 모집 (3.4~22 / 문화기획국)
- 라. 확대운영위원회 소집 공고 (3.7)

2) 유학대학

없음.

3) 문과대학

없음.

4) 법과대학

5) 사회과학대학

- 가. 학생회 리크루팅 면접 진행 중
- 나. 오피스아워 진행 중
- 다. 택배 대여 사업 및 배부 사업 진행 중
- 라. 사회과학대학 연계전공 및 공통전공 오픈채팅방 개설 및 공고 완료
- 마. 사회과학대학 세부전공 보궐선거 진행 중
- 바. 제1차 교육환경실태조사 진행 중

6) 경제대학

- 가. 리크루팅 면접 진행 중
- 나. 오피스아워 진행 예정
- 다. 사물함 배정 진행 중
- 라. 택배 대여 사업 시행 예정
- 마. 새터 조 새터 이후 미션 기획 중

7) 경영대학

- 가. 경영학과 사물함 신규신청 가이드 업로드 완료 및 신규 신청자 배정 완료
- 나. 경영학과 사물함 2차 신청 가이드 업로드 완료
- 다. 경영대학 학생회 1분기 결산안 게시판 부착 및 업로드 완료
- 라. 경영관 사물함 강제철거 진행 완료
- 마. 2022_1 경영대학 학생회 리크루팅 완료

8) 사범대학

없음.

9) 예술대학

- 가. 산돌 클라우드 라이선스 모집 완료
- 나. 신입국원 모집 완료
- 다. 오피스아워 진행 중
- 라. 구급약품 비치 완료
- 마. 물품대여사업 진행 중
- 바. 학생회실 위치 안내 게시글 업로드 완료
- 사. 예술대학 학장님 2차 미팅 완료
- 아. 수선관 샤워시설 수질 개선 완료
- 자. 국선도/연기예술학과 실기실 사용 관련 일정 협의 완료
- 차. 무용학과 실기실 제한 관련 무용학과 교수진+예대회장단 미팅 날짜 협의 중
- 카. 예술대학 개선사항 게시글 업로드 완료
- 타. 예등이 X K현대미술관 제휴 진행 중

10) 글로벌리더학부

- 가. 집행위원회 신입생 신규 리크루팅 완료
- 나. 2022학년도 개강총회 진행 완료
- 다. 학년대표단 후보자 최종등록 공고 게시 완료
- 라. 글로벌리더학부 튜터링 튜터-튜티 모집 중
- 마. 마니또 이벤트 참가자 모집 중
- 바. 법학관 사물함 배정 완료
- 사. 글로벌리더학부 1월 및 2월 결산안 업로드 완료
- 아. 글로벌리더학부 새내기 키트 배부 위한 오피스아워 주간 운영 중

11) 글로벌융합학부

- 가. 넥서스 글로벌 플렉스 제휴 안내 카드뉴스 SNS 및 카카오톡 채팅방 업로드 완료
- 나. <우코소> 신청자 팀 구성 및 카카오톡 채팅방 개설 완료
- 다. <우코소> 활동 안내 카드뉴스 SNS 및 카카오톡 채팅방 업로드 완료
- 라. 사물함 신청 카드뉴스 SNS 업로드 완료
- 마. 학부점퍼 실수요조사 참여자 스κου샵 결제 완료
- 바. 사물함 신청자 배정 완료
- 사. 사물함 배정 완료 카드뉴스 SNS 업로드 완료
- 아. cresc. 2월 사업보고 및 3월 일정 카드뉴스 SNS 업로드 완료
- 자. cresc. 신입국원 최종 선발 완료
- 차. 글로벌융합학부 마스코트 의뢰 진행 중
- 카. 글로벌융합학부 제4대 세부전공 보궐선거 진행 중

12) 동아리연합회

- 가. 중앙동아리 홍보부스 피드백 수집 중
- 나. 오피스아워 진행 중
- 다. 물품 대여 사업 진행 중
- 라. 물품대여 수요조사 예정
- 마. 중앙동아리 재등록 및 신규등록 준비 중
- 바. 동아리 온라인 홍보사업 준비 중
- 사. 동아리방 방역사업 진행 완료
- 아. 동아리방 에어컨 필터 청소 진행 중
- 자. 분과위원장 호선 진행 예정
- 차. 특캘린더 사업 진행 중
- 카. 제2차 전동대회 진행 예정
- 타. 동방 이용수칙 확립 및 sns 게시

2. 논의 및 심의 안건

1) 학생회비 배분안

총학생회: (엑셀 파일 공유) 3/2(수) 기준으로 학생회비 납부 인원 업데이트 완료. 최종 인원보다는 적은 상태이며, 따라서 실제 금액은 더 많음. 하단에 있는 모든 셀도 현 납부 기준으로 되어있는 상태. / 사회과학대학과 경제대학의 경우, 사회과학계열 총인원 중 납부 인원만 나오기 때문에 납부율 비례로 아예 불가능하며, 담당하는 인원수만큼 나누어 계산 요망.

사회과학대학, 경제대학: 확인.

경제대학: 사회과학대학과 경제대학 중 사회과학계열 비율 나누는 것은 어디서 의결하는지 질문.

총학생회: 의결은 필요하지 않으며, 양 단과대 합의를 통해 정하시면 된다고 답변.

글로벌리더학부: 당부와 현실적인 부분의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리고자 함. 당부의 말씀은, 배분액 등을 논할 때 무엇이 중점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했는데 이전과 비교하여서 달라진 점을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 따라서 현재 무엇이 달라졌을까 생각해본다면, 이전과 비교해 오프라인 행사가 더 많아진 상황. 그렇다면 19년도의 자료는 저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 해당 논리에 따르면, 44%인 현재의 기본 배정액을 올려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 허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연석중앙운영위원회 자료에서 이탈률을 보실 수 있는데, 소수 단과대가 다수(대형) 단과대보다 이탈률이 높음. 따라서 기본 배정액을 높여서 소수 단과대 이탈률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 / 다음으로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학생 수 비례와 납부 인원 비례를 더한 것이 56%. 이는 나머지인 기본 배정액 44%보다 월등히 높음. 몇 프로를 늘린다고 해도 50% 이상이 되진 않을 것이며, 50% 이상이 되는 것은 형평성이 어긋나므로 소수 단과대 취지에도 맞지 않음. 침체한 소수 단과대의 부흥은 다수 단과대와 학교 전반적으로의 부흥으로 이어진다고 생각. 따라서 양해 부탁.

글로벌융합학부: 글로벌리더학부에서 말씀해주신 것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오프라인 행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19년도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 글로벌리더학부에서 이탈률을 언급해주셨는데, 소수 단과대일수록 이탈률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행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 따라서 동일 의견.

글로벌리더학부: 지난 회의에서 50%를 제안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기본 배정액을 48%로 알고 주장한 것이며 현재의 44%에는 극단적인 수치인 것 같아, 46% 제안.

경제대학: 말씀하신 사항 정리해보았음. 우선 이전과 무언가가 달라졌기 때문에 학생회비가 동결되지 않아 왔다는 말에는 동의. 하지만, 동결되지 않았던 이유는 소수 단과대의 이익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 작년에도 기본 배정액을 낮추었는데, 이는 단과대별 1인당 배부액을 보았을 때 소수 단과대와 다수 단과대의 갭이 너무 컸기 때문임. / 다음으로, 오프라인 행사가 많아졌다고 말씀 주

셨는데 이것은 모두가 같은 입장. 따라서, 오프라인 행사가 많아졌으니 학생회비가 조금 더 필요하다는 주장은 소수 단과대의 근거자료가 될 수 없다고 생각. / 마지막으로, 19년도 자료를 무시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20, 21년도에 오프라인 행사를 안 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음. 하지만, 19년도는 소수 단과대 비율이 너무 높은 것에 의한 기본 배정액 감소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수치. 그렇다면, 이미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다음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의 자료에 맞추어 회귀하자고 하는 것이 어떠한 명분을 가질 수 있는지 여쭙보고 싶음. 정리하자면, 과거에 어떤 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악법이라고 판명 난 것과 같음. 그래서 개선이 되었는데, 추후에 그때 이러한 법이 있었는데 왜 다시 돌아가지 않느냐고 주장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지 여쭙보고 싶음. 그리고 침체한 소수 단과대의 부흥이 다수 단과대와 학교 전체에 부흥을 일으킨다는 주장에는 동의하나, 저번 중앙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각 단과대 행정실에서 예산을 편성 받으셔야 하며 다수 단과대 학우분들의 학생회비로 충당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려움.

글로벌리더학부: 오프라인 행사는 모든 단과대가 동일한 상황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착수액 비율이 높아진 것은 사실. 따라서, 장소 대관 등의 행사의 큰 부분을 기획할 때 다 똑같이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같은 논리로 기본 배정액을 높이자고 주장하는 것. / 19년도 자료가 신빙성이 없다고 하시는 부분은 관철의 차이인 것 같아 이 이상 의견을 좁히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 / 행정실 같은 경우는 글로벌리더학부와 글로벌융합학부 행정실의 경우 크게 도움을 주지 않는 편임. 따라서 다수 단과대가 고려해줘야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소수 단과대는 곤란한 상황이라는 정도만 알려주시길 희망. 그러므로 이전보다 조금은 높이는 방안이 맞다고 생각.

글로벌융합학부: 글로벌융합학부의 경우 행정실로부터 OT와 새터를 합쳐서 비교적 적은 금액을 지원받음. 이는 다른 다수 단과대와 크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 행정실이 학교에서 장려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적게 해주셨는데, 앞으로 학생회에서 여러 사업을 진행할 때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 다수 단과대와 소수 단과대의 행정실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시길 희망.

사회과학대학: 새터가 작은 행사라고 생각하진 않음. 다만 오프라인 행사로 인해 초기 비용이 커질 것이라고 말씀 주신 것에 대해,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새터 규모의 행사를 진행하는데 큰 차질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간을 학교 측에서 대여받고 새터 정도의 행사로 진행된다면 착수 금액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

글로벌리더학부: 학교 공간을 대관하면 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이는 좋은 방법이지만 결국 대체 방안. 더 좋은 퀄리티를 위해서는 외부공간을 대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차선택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글로벌융합학부: 글로벌융합학부는 OT와 새터를 60만 원으로 진행했는데, 다수 단과대는 많은 돈



으로 진행하였음. 글로벌융합학부도 더 많은 돈으로 진행 가능했다면, 상품 등의 면에서 더 좋은 퀄리티로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며, 성균관대학교 학우분들이 단과대라는 차이로 인해 다른 퀄리티의 행사를 경험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 / 경제대학에서 19년도 자료는 옳지 않다고 해주셨는데, 20, 21년도에 기본 배정액이 줄어든 이유는 온라인 행사로 진행하여 기본 착수 비용이 거의 안 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 행사가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된다면 기본 배정액을 낮추는 것이 맞으나, 현재 오프라인 행사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19년도 자료가 신빙성 있다고 주장. 따라서 19년도의 48%까지는 아니더라도 46%면 다수 단과대에서 수용 가능한 정도의 기본 배정액이라고 생각.

사회과학대학: 공간을 외부에서 대관하면 더 좋은 퀄리티로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약 7만 원의 참가비용 걸어서 새터를 운영하였고, 해당 비용으로 외부장소도 대관한 것으로 알고 있음. 하지만 학교 안에 공간이 있는데 외부대관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 / 더불어 글로벌융합학부에서 경품의 질에서 차이가 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이번 행사의 경우 신입생 환영 차원의 경품이었다고 생각하며 차후에는 경품보다는 커뮤니티나 문화생활 마련에 중점을 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 그렇기에 충분히 지금 배정된 금액으로도 행사 및 사업 진행이 가능하며, 필요하면 타 단과대 혹은 중앙운영위원회 내부에서의 협력으로도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

경제대학: 글로벌융합학부에서 기본 착수 금액을 이유로 기본 배정액을 늘리고 싶다고 하셨음. 그렇다면 기본 배정액을 2% 올릴 시 55,820원인데, 해당 금액이 실제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방역 패스가 일부 정지되었을 때, 법원에서 실제 효용이 없기 때문이었다고 판결된 것으로 알고 있음. 55,280원이라는 금액으로 인해 늘리기 전과 큰 차이가 없다면 기본 배정액을 높이는 것이 정당한지 여쭙보고 싶음.

글로벌리더학부: 55,820원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여쭙봐 주셨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다수 단과대에서 이 금액이 없다고 해서 크게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사료 되지 않음.

경제대학: 다수 단과대가 피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양보해주실 수 없냐고 하셨는데, 경제대학에서의 지속적인 반대 이유는 비용적 측면에서 소수와 다수 단과대의 1인당 학생회비가 너무 큰 차이가 났기 때문. 더불어 저희는 경제대학 개개인 학우분들의 수혜액이 너무 적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명분이 제공되기 전에는 함부로 동의하기가 어려움.

글로벌리더학부: 지속적으로 인당 배분액 비율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계신데, 이것은 논의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상 각 단과대에서 알아서 걸어서 나눠주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소수 단과대와 다수 단과대가 아닌 전체의 이익에 대해 논의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 절대적으로 나눠서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행사의 측면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인당은 참고할 수 있으나 중요한 쟁점은 될 수 없다고 생각.

글로벌융합학부: 글로벌리더학부와 동일한 입장. 이 학생회비를 배분한다는 것이 학생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 사실 55,280원을 더 받는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엄청난 의미가



있지는 않음. 하지만 차차 기본 배정액을 늘려나가서 소수 단과대도 나름의 구실을 맞출 수 있게 하는 의미에 초점을 두는 것임을 알려주시길 희망.

사회과학대학: 해당 안건에 대한 논의가 모든 단과대의 행사 진행을 위해 학생회비 조율을 하는 것에 의의가 있음을 인정. 따라서 단과대에서 각자 걷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논의를 하는 것.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이미 다수 단과대에서 소수 단과대에 큰 혜택을 드리고 있다고 생각.

경제대학: 혜택보다는 총금액으로 계산해서 나누었을 때 경제대학과 글로벌융합학부는 배정액이 3,000원 정도 차이가 남. 학생회비가 만 원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총액의 30%에 해당하고, 이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낮추지 않는 이유는 소수 단과대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 현재의 수치도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으나 소수 단과대의 발전과 성균관대학교 전체 학우를 위해 이미 고려해 드리고 있다는 점 알려주시길 희망.

글로벌융합학부: 이해해주셔서 감사. 19학년도에 48%였지만 이후 온라인 행사 진행으로 인해 하락한 것이고, 현재 다시 그 정도로 올리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해 46%로 합의 희망. 경제대학에 46% 무리인지 질문.

사회과학대학: 이번 기본 배정액을 2% 높이면서 앞으로 기본 배정액을 높이기 위한 단계로 삼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는 결국 이후에도 계속 높이고 싶다는 말씀. 그렇게 된다면 지금 논의하고 있는 주제가 생각하는 흐름과 다르지 않나 싶음. 46%에서 멈추고 더 올리지 않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이해 가능한데, 이걸 발판으로 삼으신다면 받아들이기 조금 어렵다고 생각.

경제대학: 사회과학대학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

총학생회: 조건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질문.

사회과학대학: 맞다고 답변.

글로벌융합학부: 저희가 여기서 46%로 동결하더라도 추후에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고,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기 때문에 확정 짓기는 어려움. 다만 고려는 가능.

글로벌리더학부: 계속해서 올리기 위한 발판이라고 하신 글로벌융합학부에 동의하지 않으며, 46% 동결로도 만족. 이번 학기라도 잘 보내자는 마음으로 46%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음.

예술대학: 소수 단과대에서는 대면이 늘어난 것에 중점을 두시고 글로벌리더학부는 대면 행사가 이탈률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기본 착수 금액이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주어진 상황에서도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고 생각. 예술대학의 경우 OT와 새터를 합쳐서 180만 원 정도 사용. 이 금액에는 불필요한 대규모 상품도 포함되어있음. 예술대학 인원을 고려하였을 때 소수 단과대와 재정적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나, 만족도가 높았음. 이는 결국 학생회의 역량이라고 생각. 예술대학은 6개의 단위에서 이미 자체적으로 학생회비를 추가 납부하고 있음. 따라서 인당 수혜금액이 더 줄어드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어 44% 주장.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의 역량으로 행사가 진행된다는 데에 전적으로 동의. 사회과학대학에서도 작

년 간식 배부의 경우 예산을 줄이고자 직접 간식 회사에 제휴 문의 및 미팅 진행하여 박카스에서 물품 받음. 학생회 역량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한 점이 많아 참고하시면 된다고 생각.

글로벌리더학부: 적게 돌아가는 예산에 맞추어 해결하라고 말씀해주시는 것은 들어가는 정량이 달라 동의하기 어려움.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우라면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 학생회 자질에 달려있다는 것에 일부 동의하나 그만큼 노력을 해야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

사회과학대학: 인원수 비례가 다르므로 다수 단과대도 그만큼의 금액을 받아 간단고 해서 풍족하지 않음. 그래서 작년에도 제휴를 맺었던 것임. 넉넉했으면 그 정도 노력할 필요가 없었을 것. 해당 경험은 참고를 위해 제시한 것뿐임.

경영대학: 글로벌리더학부와 글로벌융합학부에서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기본 배정액을 높이자고 주장하셨는데, 이미 44%로도 납부한 것보다 더 많은 학생회비를 가져가고 있고 다수 단과대는 50%도 안 되는 금액을 가져감. 이것 자체가 같은 대우가 아니라고 생각. 다수 단과대 학우분들의 경우 10,000원을 냈는데 30~40%의 수혜밖에 돌아오지 않으면 왜 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질 것이고, 앞으로 학생회비 납부 인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 사실 40%도 높다고 생각하지만, 소수 단과대를 고려하여 44%가 최대라고 말씀드리고 싶음. / 경영대학의 경우 글로벌경영학과에 약 500명의 학우분이 있는데, 단지 단과대로 배정을 받지 못한 것뿐이지 단과대로 배정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인원임. 경학대회에서 현재 기준인 430만 원으로 글로벌경영학과와 학생회비를 배분하게 되면, 경영대학은 약 350만 원, 글로벌경영학과는 약 80만 원의 돈을 배분받음. 글로벌경영학과가 단과대로 편성되었다면 약 18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음. 글로벌경영학과는 단과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1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못 받는 상황. 다수 단과대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주시길 바라며 동결 주장.

예술대학: 글로벌리더학부에서 학우분들께서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 저희는 이미 내부에서도 추가로 돈을 납부 중이기에 이미 44%에서도 충분히 동등하지 않은 상황.

경제대학: 경영대학의 발언에 첨언 하자면, 글로벌경제학과와 경우에도 규모가 글로벌리더학부 및 글로벌융합학부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며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 글로벌리더학부의 주장에 동의하기 어려움. / 사회과학대학 발언에 첨언 하자면, 단과대 학생들이 누려야 하는 의무라고 말씀 주셨는데, 학생회비를 보았을 때 손해 보고 있는 것은 다수 단과대이므로 오히려 다수 단과대가 주장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

글로벌리더학부: 예술대학에서 학생회비를 추가로 걷고 있는 것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질문.

예술대학: 예술대학의 경우 배분받은 학생회비가 부족해서 6개 단위에서 각자 추가로 학생회비 납부를 하는 상황이라고 답변.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의 경우 세부 전공이 여덟 개가 있고, 특별자치기구도 많은 단과대에 속함. 원래라면 그 모든 곳에 지원금을 동등하게 배분하는 것이 맞음. 하지만, 현재 배정액 비율



대로라면 380만 원을 받게 되는데, 단순히 각 학과에 20만 원씩 배정한다고 해도 160만 원이 들어가고 자치기구를 포함하면 그 이상이 들어가게 됨. 그래서 모든 단위에 제공할 수 없어서 모든 학과에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안을 받아 꼭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그러므로 2%, 55,820원의 차이로 다른 학과에 더 드릴 수 있으므로 차이가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음.

글로벌융합학부: 글로벌융합학부의 경우 세부 전공이 3개 있음. 현재 비율로는 학생회비를 100만 원 정도 받을 텐데, 각 과에 20만 원을 제공한다고 가정했을 때 학생회에서는 40만 원을 가져가게 됨. 따라서 5만 원이면 오히려 글로벌융합학부가 더 큰 차이. / 아까 사회과학대학 측에서 외부업체와 컨택한 것을 말씀 주셨는데 이는 인원이 많은 단과대에서만 해당하며, 인원이 적으면 업체랑 컨택이 잘 안된다는 점도 알아주시길 희망.

경제대학: 인원이 적으면 협찬받기 어렵다고 말씀 주신 점과 관련하여, 주장하신 것 중 각 단과대학우가 아니라 성대 전체 학우로 논의해서 학생회비 높이고 싶다는 것과 비슷한 논리로, 다수 단과대와 간식 협찬을 같이 받는 것을 고려해보시는 것은 어떤지 제안. 이런 방식을 통해 학생회비로 인한 충당이 아니어도 다른 방향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

사회과학대학: 단과대가 아무리 수가 적다고 해도 100명 이상은 되기 때문에 제휴업체와의 조율을 통해서 충분히 협의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 사회과학대학도 제휴 맺었을 때 업체 측과 충분히 입장 전달 이후에 최종안을 내렸기 때문에 참고 부탁.

경영대학: 사실상 기본 배정액이 높아지면 다수 단과대의 학우분들이 수혜를 많이 받지 못할 것이고, 이로 인해 납부율이 떨어지면 결국 학생사회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 현재 1년만 볼 것이 아니라, 학생회 임기를 이어갈 다음 대들에도 해당. 따라서 기본 배정액을 높이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 그리고, 이번 학생회비 배분에 대해서는 후대분들의 참고자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동결을 양보하기 어려움. 55,820원이라는 액수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음. 이는 앞으로도 이루어질 논의이고 후대 참고자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해서 결정을 내려주시길 희망. / 그리고 글로벌융합학부는 44%의 경우에도 140만 원을 받으므로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글로벌리더학부: 말씀 주신 내용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바이나, 오프라인 행사의 증가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므로 19년도 자료도 참고해주시길 희망.

글로벌융합학부: 간식 사업에 돈이 부족하여 간식 사업을 못 한다기보다는 차질이 있다는 입장. 기본 배정액에서 배정받아야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도움이 됨. 따라서 19년도 확인해서 2% 늘리자고 주장.

경제대학: 글로벌융합학부에서 간식 사업에 대해 말씀 주신 것과 관련해 답변드리자면 그런 의도가 아니라 학생회비 외의 수단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을 학생회비로 해결하려는 것에 이미 손해를 보고 있는 다수 단과대가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



글로벌리더학부: 수혜율이 계속 논의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논리로 접근하자면 총학생회가 100%를 가져가는 것이 맞으므로 논의의 실익이 없음. 총학생회에서 단과대를 지원하고자 총학생회 비율을 공약으로 내세워 줄인 것이니, 과 학생회비를 나눠서 가져가는 것에 관한 이야기는 논의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 / 경영대학이 말씀 주신 지속 가능한 학생사회는 소수 단과대를 배제하고는 이룩할 수 없다고 생각. 다 함께 부흥하기 위해서는 기본 배정액을 늘리는 방안이 의도에 적절하다는 의견.

경영대학: 글로벌리더학부와 글로벌융합학부의 전체 학생을 합친 규모가 글로벌경영학과와 동일. 그런데도 글로벌경영학과에서는 80만 원밖에 배부해주지 못하나, 그 예산으로도 운영이 가능. 글로벌경영학과는 단지 단과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적은 학생회비를 배분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글로벌리더학부와 글로벌융합학부는 규모가 이보다 작음에도 더 많이 가져가고 있음. 공평과 질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문.

글로벌리더학부: 글로벌경영학과의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경영대학과 글로벌경영학과에서 주최하는 행사의 중복수혜대상이므로 동등 입장으로 비교하기 어렵다고 생각.

경영대학: 두 단위의 행사는 웬만한 경우 다 따로 진행되며 중복수혜대상인 사업이 거의 없다는 점 인지 부탁

글로벌리더학부: 논의에서 계속 인원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학생회비를 배분하는 논의의 중점 자체가 이걸 동일 분배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에서 가져가야 모든 단과대가 공평할지이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아서 가져가야 한다는 것은 논의의 시작점이 아니라고 생각.

경제대학: 전적으로 동의하나 액수 차이가 30%로 너무 큼. 그 갭을 더 키우겠다는 주장은 논의의 명분이 충분하다고 생각.

글로벌리더학부: 이번 연도의 동결을 조건부로 46%로 인상하는 것 주장.

경영대학: 동의하지 않음.

글로벌리더학부: 45%를 주장.

경영대학: 배분액 비율에 대한 논의는 23학년도에도 똑같이 지속되리라 생각. 기본 배정액 1%는 당장은 약 2만 원의 차이이지만 이것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함. 동결이 아닌 기본 배정액의 상승이 1%라도 있었다면 후대는 전년도에 1%를 인상했으니 1%를 또다시 인상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판단하므로, 정말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동결을 요청.

글로벌리더학부: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 거시적인 입장에서 동의. 하지만 글로벌리더학부는 현실적인 입장에서 1%도 절박한 상황. 당장 이번 학기에 예산이 약 5만 원가량 늘어나는 것은 비율상 소수 단과대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 미래를 생각해서 동결을 주장하시면 동일하게 인상을 주장할 수밖에 없으므로 거시적인 입장에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

경제대학: 미래를 생각하자면 낮추자고 주장했을 것임. 글로벌리더학부에서 현실적으로 고려해달라



고 말씀 주셨는데, 경제대학의 현실은 학우분들이 이미 30~35%씩이나 차이 나는 액수를 수혜받고 있다는 것. 이 점은 소수 단과대에서 양해해주셔야 한다고 생각.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다수 단과대도 당연히 안고 가고 있음.

총학생회: 단과대 별로 비율 제시 부탁. 출석 단위의 2/3가 찬성이 필요하므로 6표 이상의 찬성이어야 의결 가능. 관례로는 동아리연합회와 총학생회가 기권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나머지 단위가 전부 찬성해야 의결됨. 의견이 더 좁아진 상태에서 의결을 진행하려 했지만, 일단 희망 비율을 받아서 의결을 진행하고 맞추어나가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판단.

(단과대 별 기본 배정액, 납부인원 비례, 학생 수 비례 순)

글로벌융합학부: 45%, 23%, 32%.

글로벌리더학부: 46%, 22%, 32%.

경제대학, 예술대학, 경영대학, 사회과학대학: 44%, 23%, 33%.

경영대학: 동결 주장이 절대 희망 사항이 아님. 원하는 바로는 40%를 넘기는 것도 타격이 크다고 생각. 따라서 44%가 양보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

글로벌리더학부: 글로벌리더학부도 45% 이하로 가면 동의가 어려움.

총학생회: 기본 배정액이 최소 44%, 최대 46%인데 혹시 45%에서 합의할 생각 없는지 질문.

경영대학: 경영대학은 그럼 희망 사항이 40%라고 생각. 양보한 선이 이 정도라고 주장.

경제대학: 44%라는 수치는 합의를 보기 위한 제시가 아니라 꾸밈없이 딱 말씀드린 수치.

총학생회: 1번 안부터 의결 진행.

1번 안: 기본 배정액 45%, 납부인원 비례 23%, 학생 수 비례 32%

→ 부결 (찬성 5 / 기권 0 / 반대 4)

총학생회: 2번 안 진행이 의미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3번 안건 의결 진행.

3번 안: 기본 배정액 44%, 납부인원 비례 23%, 학생 수 비례 33%

→ 가결 (찬성 7 / 기권 0 / 반대 2)

총학생회: 해당 비율을 바탕으로 인준받아 3월 말에 최대한 빠르게 입금하도록 하겠음.



3. 기타 안건 및 건의 사항

1) 대의원 명단 수합

총학생회: 확대운영위원회 참석 가능한 대의원 내일까지 적어주시길 부탁.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명단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부탁.

경제대학: 확대운영위원회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인원 구성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

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확대운영위원회에 학년별 대표가 추가된 것이라고 답변.

경제대학: 경제학과와 의 경우 분반으로 인해 학년 대표가 존재하지 않고 반 대표만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표단 역할인지 질문.

총학생회: 반 대표가 몇 명인지 질문.

경제대학: 반 대표는 11명이라고 답변하며, 대표는 그중에서 한 명만 참석하는 것인지 질문. / 분반이 끝났다가 올해 다시 생겨 2학년 대표만 있는데 3, 4학년은 어떠한 방식으로 대표 선출을 해야 하는지 질문.

총학생회: 관례적으로 대표를 선출하지 않는 단위는 학생회에서 대표를 지정했으며, 경영대학 반장의 경우에도 과 대표 대신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학년 대표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다고 답변. / 다음 주 18시에 중앙운영위원회, 19시에 확대운영위원회이므로 중앙운영위원회 최대한 빠르게 끝낼 예정.

글로벌융합학부: 자료집을 보니 컬처애펀테크놀로지융합전공, 데이터사이언스융합전공, 인공지능융합전공도 기재해야 하는데, 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와 학년 대표가 전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결권이 없어 총원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없다고 작성해 주시면 된다고 답변.

2) 3/23(수) 15시 졸업앨범 입찰업체 PT

총학생회: 3/23(수) 15시에 인문사회과학캠퍼스에서 졸업앨범 입찰업체 PT 진행. 총학생회장단, 졸업준비국 인원들과 각 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 위원 세 명씩 참석. 참여 원할 시 선착순 3명 연락 부탁.

3) 사회과학대학: 글로벌융합학부 마스코트 진행 관련

글로벌융합학부: '크몽'이라는 업체와 의뢰과정 중 예술대학 측에서 인력사무소 언급해주셔서, 예술대학과 작업하는 것이 더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판단되어 예술대학과 작업하는 방향으로도 생각 중.

사회과학대학: 혹시 사회과학대학도 학생회 차원에서 예술대학에 요청하면 받아주시는지 질문.

예술대학: 원래 예술대학 내부에서 재능을 기부하며 서로 돕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라, 외부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이후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답변.

4) 글로벌리더학부: 법학관 지하 2층 개방 여부

글로벌리더학부: 법학관 지하 2층이 개방되었다고 공지되었는데, 잠겨있는 상태라 확인 부탁.

총학생회: 출입구 추가개방 안내 자보를 올렸을 때와 상황이 유동적으로 자주 달라지고 있어, 확인해보겠다



고 답변.



총학생회장

 (인)

부총학생회장

권희성 (인)

사회과학대학

 (인)

경제대학

정현진 (인)

경영대학

김무진 (인)

예술대학

정익 (인)

글로벌리더학부

심동원 (인)

글로벌융합학부

김수민 (인)

동아리연합회

이현철 (인)

상기 회의록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3월 7일